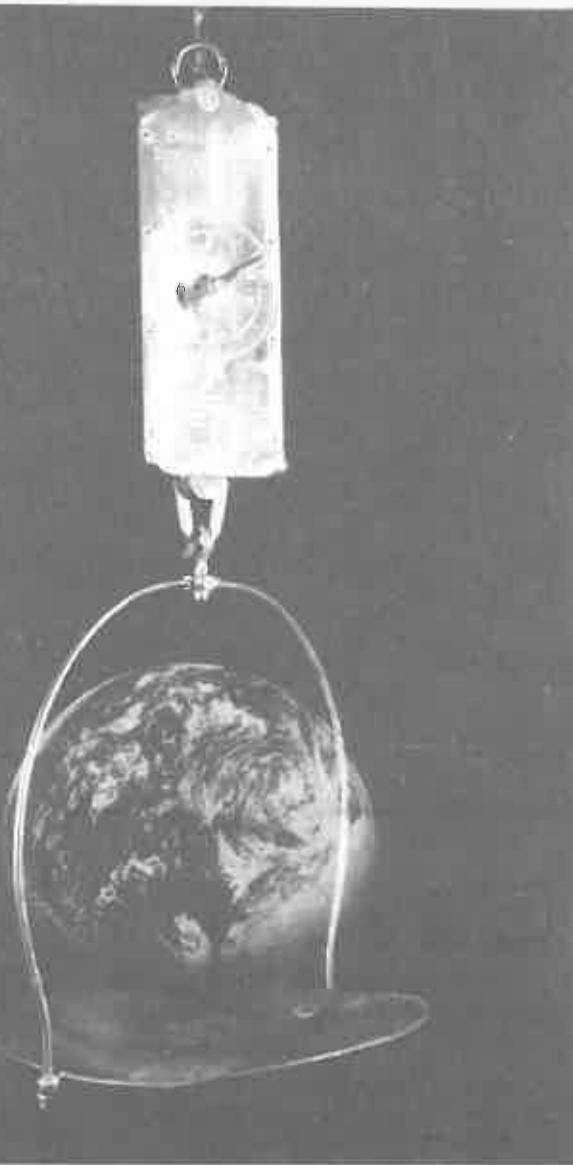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윌리암 맥도날드 지음
김 병 희 옮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山 景 路 耶 稣 教 會



그리스도의 복음을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411-31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호
전화 (0344) 914-2732, 팩스 (0344)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san4-dong, Ilsan-gu, Koyang-shi, Kyunggi-do,
411-314, Korea.

THY WORD IS TRUTH

WILLIAM MACDONALD

EMMAUS BIBLE SCHOOL
BOX 980
OAK PARK • ILLINOIS 60301

서 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영감)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그 거룩한 말씀에 의거한 모든 가르침의 토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실은 지난 200년 동안 합리주의 및 근대주의, 기타 다른 형태의 회의주의에 의해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이 공격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자영감(逐字靈感)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고수해 온 이름있는 사람들과 단체들 안에서까지도 그런 공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그런 초현대적이면서도 무척 음험(陰險)한 도전에 독자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선언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요 17:17).

“나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 주며,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 주며, 나의 도덕성(道德性)의 가장 깊은 근원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나를 철저하게 판단하는 동시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나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책

6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이야말로 신임장(信任狀)을 그 자체에 가지고 있습니다"(C. H. 매킨토쉬).



(시카고 대학 부설 동양 연구소 소장)

카르벳 쿰란에 위치한 옛세네 공동체에서 발견된 고대 성경사본인 사해 사본이 들어있는 항아리 중 하나



(시카고 대학 부설 동양 연구소 소장)

모압 왕 메사에 의해 세워진 디본 석비의 한 모조판. 이스라엘과 “오므리 왕가”(왕하 3:4)에 대한 그의 성공적인 반역을 기념함

차 례

서 문	5
1. 성경－하나님의 말씀	9
2. 성경에 대한 다른 증거들	18
3. 성취된 예언들(1)	28
4. 성취된 예언들(2)	37
5. 성경과 과학(1)	45
6. 성경과 과학(2)	54
7. 반복되는 역사(歷史)	62
8. 성경의 난해한 문제들	69
9.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77
10. 주 예수님의 족보	88
11. 구원의 복음	94
12. 요지부동(搖之不動)의 성경	101

제 1 장

성경 –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되었으며, 무오(無誤)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각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끓어진 죄인으로서 어떠한 필요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아들의 대속적인 회생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도리(道理)를 알게 되었으며,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 자기 생애의 주님(주인)으로 시인(是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롬 10:1~7).

그들은 또 자기가 불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그들은 교실, 사무실, 작업장, 막사에서 성경의 완전무결성을 믿는 신앙이 과연 합리적이라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들에게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벧전 3:15).

“믿음(신앙)이란 꼭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은 명언(名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신앙)은 하

10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님이 말씀에 계시해 놓으신 것에 대하여 결코 회의를 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임을 감안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전히 합리적인 것으로 입증되리라고 믿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혹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 했습니다. “무신론자에게는 이유(reason)는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소망(hope)은 없으며, 위선자에게는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비해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소망에 대한 이유도 있고, 이 이유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영감(靈感)의 정의(定義)

통용되는 어떤 용어의 진의(眞意)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그 용어에 대하여 올바른 정의(定義)를 내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영감)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중 대한 진리가 제시된 부분들 중 하나는 디모데후서 3:16,17인데 각각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마땅히 암기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세오프네우스토스”(theopneustos)라는 한 단어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심으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되었듯이” 성경 말씀 속으로도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생서(生書, 살아있는 책)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창 2:7; 히 4:12과 비교).

따라서 “감동”(영감)이란 말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활력을 불어 넣어, 그들의 개성은 빼앗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지배하여 그들의 기록한 말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벧후 1:21, 고전 2:13, 삼하 23:2, 히 3:7, 행 28:35을 신중히 읽고 밑줄을 그으십시오).

말(언어)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기에 역시 말씀(언어)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자기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실 수 있음은 지당한 말입니다. 인간에게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래서 성경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등등.

성경의 영감성(靈感性)에 관한 증거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영감성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확인하는 것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책은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의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고, 그들 신앙의 합리성을 도전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반

12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응에 대하여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고 확인한다 해도 이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대답만 유발 시킬 것입니다. “잘못은 인지상사(人之常事)”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세계적으로 번역되고 또 배포된 사실이 그 진실성을 입증하지 않느냐고 대답하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영감성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는 어떻게 그 증거를 대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을 상정(想定)해 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께로부터의 계시가 가능한 일인가?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물론 “그러실 수 있다”입니다.

(2) 그렇다면 그런 계시가 있음직한 일인가?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자기 마음과 뜻을 전달하고 싶어하실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과연 이치에 합당한 생각인가? 그 대답도 역시 “그렇다”입니다.

(3) 그렇다면 그런 계시가 실제의 사실인가?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의심의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 고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시겠습니까? 그 해답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 자체가 최고의 증거이다.” 어떤 훌륭한 그리스

도의 종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그것을 읽어 보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성경의 진실성에 관한 증거들을 성경책 속에서 충분히 찾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주에서 가장 권위있는 계시가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 자체가 최고의 신뢰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할 도리를 그 스스로 지니고 있어야지 그밖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경 밖의 전거(典據, 자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신빙성을 지니게 될 텐데 이것은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결정적이며, 완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차적 증거는 그 말씀 자체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6:13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외에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권위를 빌어서 자기 말을 확증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근본적으로 그 말씀 자체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달리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역사(歴史)와 예언, 과학 속에서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을 외적(外的)인 증거들이라 칭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섭리

14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속에 확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은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것들이며, 성경에 관한 중대한 증거는 성경 자체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페이지들 속에는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그 신임장을 자체 속에 지니고 다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외적인 증거들로 어떻게 확증되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신임장과 증거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성취된 예언들, 구원의 복음. 이런 사항들을 숙고해 보기 전에 먼저 직면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곧, 성경의 원본 문제입니다.

성경 원본의 소재(所在)

성경이 축자적(逐字的)으로 영감을 받았다(또는 실제의 날 말 하나하나가 다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말은 곧, 맨처음 기록된 성경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오(無誤)하다고 믿는 것은 바로 이 원본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즉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원본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그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원본의 보존을 인간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며, 그 이유는 아마 인간이 성경 원본 자체를 송배할까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를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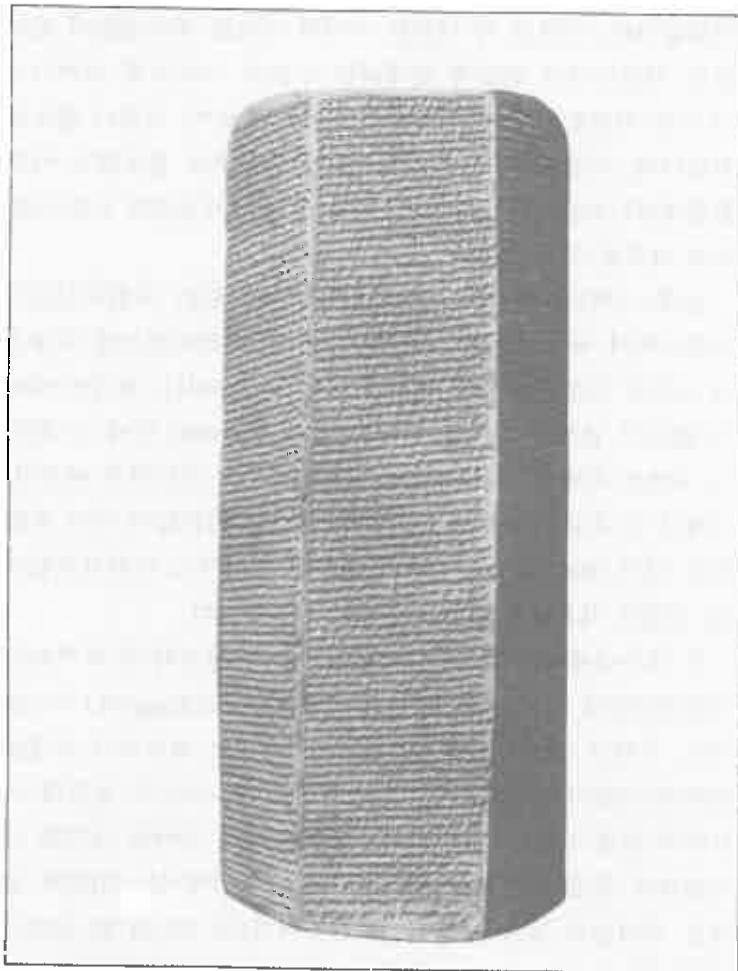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존하는 여러 종류의 번역성경들이 신뢰할만하지 않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비록 원본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되어 온 수많은 사본들이 남

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본들 사이에 사소한 차이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에 관계되는 주요한 교훈들에 있어서는 그 모든 사본들이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사본들 사이에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분명한(그래서 변론을 일으키는) 구절이 기독교의 근본 교훈들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일례(一例)를 듣다면, 어느날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저장실에서 독립선언문의 원본이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그 초안이 작성된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 원본이 엄청난 가격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원본 그 자체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원본에서 베껴진, 그래서 그 원본의 존재를 입증하는 수백의 사본들이 이미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본들은 원본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구약성경의 한 번역판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곧, 70인역 성경(the Septuagint)이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경에 만들어진 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70인역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 간에는 번역이라는 행위를 통해 스며든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70인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마 22:31,32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오늘날까지 발행된 대부분의 번역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故) 핸들리 모울(Handley Moule)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살아 계신 존재로, 그러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재(實在)로 처음 다가오셨을 때 제가 느꼈던 깊은 안도감 중의 하나는 그분이 성경



(시키고 대학 부설 동양 연구소 소장)

유다에 대한 공략을 기념하는 산해립의 기념비

“인근 지역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읍들은 물론 그의 46개의 강한 성읍들을 내게 내어주기를 거절한 유대인 히스기야에 대해 말하자면, 짐은 교량을 세우고 공성망치를 동원하고 보병을 앞세워 공격하고 굴을 파고 성벽을 깨뜨리고 굴대를 사용함으로써 그 성들을 에워싸고 마침내 공략하였다. 짐은 200,150명의 남녀노소 사람들과 무수한 말, 나귀, 노새, 낙타, 가축, 양 등을 전리품으로 취했으며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를 어렵게 만드는 불가해한 문제들이 성경 속에 너부나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제 저는 그냥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신뢰할 것이며, 그 이유는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딘스데일 T. 영(Dinsdale T. Young)은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대한 확증은 믿는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사실입니다. 그분의 판정보다 더 나은 법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계속 확증하시는 그리스도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구약성경을 아마도 4백번 이상 인용 내지 언급하셨는데 이 이상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관한, 그분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모든 반론을 끝내시기에 충분합니다.”**

* A. J. 풀록의 *Is the Bible Inspired of God?*에서 인용(London:Central Bible Truth Depot), p13.

** *The Unveiled Evangel*(London:Epworth Press, no date given), pp. 151, 152

제 2 장

성경에 대한 다른 증거들

성 경의 모든 페이지들이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책이라는 “무계획적인 일치들”과 “무계획적인 증거들”로 가득차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영감성(靈感性)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증거들 중의 하나는 그 통일성입니다. 만약 성경이 한사람에 의해 몇 년간에 걸쳐 기록되었다면 그 각 장(章)들이 통일적으로 한 완전한 줄 거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관하여 단순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66권은 적어도 40명 이상의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살지 않았으므로 그들 사이에 합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대략 B.C. 1500년경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사도 요한은 A.D. 96년쯤 신약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성경의 66권들은 멀리 바벨론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한 지역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다른 언어인 히브리어, 갈대아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다른 문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산문과 시는 물론 율법, 역사(歷史), 철학, 교훈, 예언,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경말씀들은 다 연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할 수 없는 통일성을 지닌 채 하나의 완전한 줄거리를 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記者)와 모순되는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주제가 그리스도이든, 기도이든, 혹은 인도에 관한 것이든 미래의 사건에 관한 것이든 그 가르침은 일관성이 있고, 보완적입니다. 불필요한 반복은 전혀 없으며,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로 조화를 이룬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인간들이 서로 협작하여 그처럼 놀라운 통일을 산출할리 만무한 까닭에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자들의 작업을 지휘하셨다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한 우두머리 저자가 있어서 성경이 기록된 여러 세기(世紀)들을 연결하시고, 각장의 오라기실들을 하나의 완전한 피륙으로 짜셨어야만 합니다.

하늘로부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예술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 시대에, 각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처럼 일치된 진리들을 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니,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야만 했을까?
요청받지 않는 그들의 고통들, 환영받지 않는 그들의 충고,

손해를 당한 그들의 이익, 순교를 당한 그들의 댓가.*

루우벤 A. 토레이(Torrey)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비평기들을 도전하려고 다음과 같이 훌륭한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만일 미국의 각 주(州)를 대표하는 석재(石材)로 수도 워싱턴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제안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 어떤 석재는 N. H. 말보로에 있는 대리석 채석장에서 가져오고, 또 어떤 석재는 매사추세츠의 퀸 시(市)에 있는 화강암 채석장에서 가져오고 … 어떤 석재는 미네소타의 카소타에 있는 사암(砂岩) 채석장에서 가져오고, 또 어떤 석재는 파아 웨스트의 석고 채석장에서 가져오고 … 이런 식으로 미국 각 주에서 석재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석재들은 갖가지 크기와 형태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으며, 어떤 것은 중간 크기이고, 어떤 것은 입방체이고, 어떤 것은 구체(球體)이며, 어떤 것은 원통형이고, 어떤 것은 원추형이며, 어떤 것은 사다리꼴이고, 어떤 것은 직육면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석재들은 그것을 캐낸 채석장에서 최종적인 모양으로 다듬어져야 하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어떠한 석재에도 나무메나 끌을 대어서는 안됩니다. 마침내 석재들이 워싱턴에 도착하자 건축가들이 작업에 들어 갑니다. 그들이 건축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그 모든 석재들이 각기 제 자리에 서로 꼭 맞아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커서 못쓰거나 너무 작아서 못쓰는 석재는 단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꼭 맞아들어가다가 마침내 건축가들의 작업이 끝났을 때 여러분 앞에 성전 한 채가 서 있는데,

* Dryden, John, *Religio Laici*, found in *The world's Great Religious Poetry*, Caroline Hill, editor (New York:Macmillan Company, 1928), p. 103

이 성전은 벽과 부벽(付壁), 본당 회중석, 아아치, 수랑(守廊), 성가대석, 첨탑, 돔(등근 천장) 등등 그 모든 윤곽과 세공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남는 석재는 단 하나도 없으며, 벽감(壁龕)이나 모퉁이에 단 하나의 석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석재들은 그것을 떠온 각 채석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사실 그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것은 곧, 각 채석공 배후에는 우두머리 건축가가 있어서 그가 처음부터 건물 전체를 설계한 후 세부적인 작업명세서를 채석공들에게 각각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이와 같은 통일성을 “그저 우연히” 만들어 냈다고 믿는 것은 경신(輕信)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록을 인도하셨다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경신은 증거를 고려해 보지도 않고 무모하게 나아가는 일종의 맹종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절대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인간 생활에 미친 성경의 영향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그 메세지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끼친 성경의 영향입니다. 이 유일무이한 책을 통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돌아온 영혼들

* Talks to Men(New York:Fleming H. Revell Co., 1904), p. 26

의 숫자를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갖다주었습니까? 성경은 실로 기적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그 메세지는 이것을 믿고 행동하는 술주정뱅이들과 창녀들, 살인자들, 강도들, 찌끼같은 인생들을 구원했고 교정(矯正)시켰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책 중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 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厄姆 스크로기(Graham Scroggie)가 말한대로 성경은 “찾아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을 참조할 때마다 성경은 그에게 특권을 주고, 기회를 제공하며,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유포

현재까지 배포된 성경과 쪽성경(성경의 일부)의 숫자는 너무나 엄청나서 그 수를 다 헤아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알려진, 또 장차 알려질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은 샛길을 걸어다녔으며 더 많은 대로를 여행했으며, 더 많은 문을 두드렸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 모국어로 이야기했으며 또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성경의 영감성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엄청난 증거들을 더욱 강화합니다. 성경의 많은 장점들 중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 번역의 용이성입니다. 성경 만큼 쉽고 평이하게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 Scott, walter, About the wonderful Book(Hull:walter scott), p. 3

** Is the Bible the word of God(Chicago:Bible Inst. Colp. Ass'n., 1922), p. 121

니다.

1971년 미국성경협회(American Bible Society)의 보고에 의하면 성경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무려 1,400여 종류 이상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작업은, 그 지침줄 모르는 번역자들이 성경을 단지 또하나의 책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보존

성경이 보존되어온 방식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 세기 기록들은 성경을 멀접시키려 했거나 그 사용을 금지시키려 했던 시도들이 부지기수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세속적 극단론자들은 그 중요의 책을 비평하고, 금지하고 불태웠으며, 그 재를 가까운 강물에 날려 버렸지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곧 성경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성경의 생존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모루(God's Anvil)”라는 제목의 시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장간 문 곁에 잠시 서서 저녁 종소리처럼
울려퍼진 모루소리를 나는 들었네.

호기심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긴 세월 두드려 닳아진
망치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네.

“이 모든 망치들을 이렇게 닳도록 하는데에 얼마나 많은
모루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면 충분하지요.”

24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반짝이는 눈으로 그는 이렇게 대답했지.

“모루가 망치들을 둇아 없애기 때문이지요.”

‘그렇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루도 그와 같군.

여러 세대의 회의주의자들은 그 모루를 연타했지만 그 시끄러운 타성(打聲)에도 아랑곳없이 그 모루는 손상되지 않고 망치들만 사라졌군.’

성경의 만대(萬代) 적용성

우리는 또 성경이 다른 책들과는 달리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 옛세자는 모든 시대에 적합한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화들과 인물들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성경의 범세계적인 호소력

성경은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빙자와 부자, 노인과 젊은이, 식자(識者)와 무식자를 위한 책입니다. 만약 성경이 한낱 인간의 작품에 불과하다면 왜 인간은 그처럼 범세계적인 호소력을 지닌 또다른 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무한한 심오성

아무리 여러번 성경을 읽을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깊이 연구할지라도, 새로운 진리들이 그 페이지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다는 사실은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의 하

나일 것입니다. 가장 박학다식한 학자들이라도 성경의 심오한 진리들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고 서슴없이 인정할 것입니다.*

성경이 창출해낸 문서들

성구사전, 강해서, 신학서적, 시문(詩文), 철리(哲理), 설교집 등 성경에 관하여 기록된 서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도서관들이 계속 성경에 관한 서적들로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은 새로운 자료들을 끊임없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으킨 운동들

인간에게 미친 성경의 영향을 토대로 하여 설립된 자선단체와 다른 기관들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학(교)들과 고아원들, 병원들, 구조 단체들, 문서 보관소들과 선교단체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숫자들을 도표로 만들기란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C. H. 스페론(Spurgeon)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아원 사업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되게 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순전성(시 119:140, 잠 30:5)

* White, Ernest, Christian Life and the Unconscious (New York: Harpers, 1956), p. 109

26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이 지니는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는 그 순전성입니다. 성경은 지고(至高)한 도덕 수준을 설파할 뿐만 아니라 죄를 묘사할 때는 그것을 혐오스럽고 역겹게 만듭니다. 성경은 시시때때로 인간의 사악함을 사실 그대로 폭로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혐오하여 돌아서게 만듭니다.

성경의 생명력(행 7:38, 요 6 : 63, 베전 1:23)

또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들 중의 하나는 그 생명력입니다. 이것은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간파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될 때 악한 사람들은 움찔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정치나 요즈음의 사건들에 대하여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도 역시 권면이나 책망, 훈계와 위로에 있어서 새로운 힘으로 다가오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요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비참한 처지에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고 헐문(詰問)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사기(詐欺)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내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무오(無誤)하고 좋은 책이긴 하다고 인정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책을 쓰고자 하겠습니까?

니까? 물론 그럴 리 없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하며, 사단은 자기(사단)를 그토록 철저히 폭로하는 문서를 기록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역시 ‘결코 그럴 수 없다’입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며, 그분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무오한 말씀이라는 결론을 동일하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해롤드 M. 렘버트)

“성경은 이 세상에서 알려진, 또 장차 알려질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은 샷길을 걸어다녔으며 더 많은 대로를 여행했으며 더 많은 문을 두드렸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 모국어로 이야기했으며 또 그려할 것입니다”—로버트 G. 리.

제 3 장

성취된 예언들(1)

성 경의 수 많은 예언들이 극히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성취되어 온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실히 입증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만한 이 증거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서 예언의 성취를 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사 41:20~26, 43:8~11).

예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추가될 때마다 모든 예언들이 정확한 순서대로 성취될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A,B,C라는 세 개의 알파벳은 6가지 순서로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1 \times 2 \times 3 = 6$). 그리고 A,B,C,D,E,F는 720가지 순서로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1 \times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 720$). 이것은 소위 ‘순열의 법칙’이라 불립니다.

그러면 이 법칙을 성경의 예언 중 일부에 적용해 봅시다. 성경의 어떤 예언들은 10가지 이상의 세부사항들이 일정한 순서로 일어날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 예언들이 그저 우연히 그 순서대로 성취될 확률은 3,628,8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A. T. 피어슨(Pierson)은 그의 「확실한 많은 증거」^{*}(Many Infallible Proofs)라는 책에서 성취된 예언으로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 논증을 훌륭히 사용했습니다.

성취된 예언의 주목할만한 많은 사례들 중에서 몇 가지를 듣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두로, 예루살렘, 그리스도, 갈릴리의 어떤 성읍들, 다니엘의 네 제국에 관한 예언과 70이례에 관한 환상. 그러면 이 각 예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인

언젠가 프레데릭(Frederick) 대제는 자기 의전관(儀典官)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말을 단 한마디로 대답해 보게.” 그랬더니 그 의전관은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유대인이옵니다.”^{**} 독일의 저술가 헤겔(Heg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철학은 유대인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들의 운명은 성경에 하나님의 정확성으로 예언되어 있으며, 그들의 과거 역사와 현재의 상태는 그 예언의 정확성을 당당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 12 : 2).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 예언이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된 사실

*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886).

** Pierson, A. T. op. cit., p. 59

30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모든 민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눅 3:34)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그분이 그 예언을 충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이 만일 예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치 아니하면 펫박을 받아 열국(列國)에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번 예언되어 있습니다(레 26:31~33, 신 4:27, 28:36,37, 64~67, 29:28, 렘 9:16, 갤 22:15, 속 7:14).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이 흩어진 일은 여러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흩어진 일은 A. 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문자 그대로 열국에 흩어졌을 때 발생했으며, 그 이후로 그들은 대부분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백성에 관하여 또다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곧, 비록 그들이 그렇게 흩어질지라도 그들은 민족적인 주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별개의 민족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민 23:9). 이 말씀은 터무니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민족이 정복을 당하여 흩어지면 이웃들과 통혼하여 주변 국가에게 동화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기이한 백성들은 열국에게 삼킴을 당했어도 결코 소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호세아 3장 4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달 동안 왕도 없고 군(君)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

이 지내다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왕족(왕과 군)도 없고, 레위인들의 제사장 사역과 제사(에봇과 제사)도 없으면서도 우상(주상과 드라빔) 숭배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유대인들의 상태를 잘 요약해 주는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성경이 단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비록 여전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는 있을지라도(겔 36:24~27) 자기 땅에 다시 모아져서 재건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그러나 필자가 이 글을 쓸 때와 현재의 상태는 다름－역주) 우리 시대에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에 독자적인 정부를 형성하여 국기와 군대와 교육제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5개 대륙의 74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품목은 감귤류 열매인데 이것은 이사야 27장 6절의 예언에 비추어 볼 때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조림 사업에 의해, 주로 침엽수로 이루어진 수 백만 그루의 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미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신명기 32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뺄게” 하는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기름이 발견되었을 때 아나운서는 노다지를 새로 발견했다고 방송을 한 후에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애굽사람들이 경멸적으로 칭하는

* Clark, Blake의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Bible Prophecies are Coming True)에서 (American Weekly Magazine, October 13, 1957).

것처럼) 이 셈족, ‘모래 방랑자들’(sand-ramblers)의 시시한 외모에 견주어 볼 때 그들이 세계사에서 담당해 온, 그리고 현재도 점증적(漸增的)으로 담당하고 있는 엄청난 역할은 놀라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학, 종교, 사업, 정치, 예술, 기타 다른 여러 종류의 분야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숫자적인 세력에 전혀 비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타 민족의 공헌을 능가합니다.

그들의 역사(歷史)가 성경에 너무나 세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성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대법관 고(故) 엘스카인(Erski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전세계에 흩어짐, 그들의 유례없는 고난, 그들의 놀라운 보전은 설혹 다른 모든 증거들이 바닷속에 깊이 가라앉는 경우에도 성경의 진실성을 확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세계 4 제국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기원전 530년경에 기록된 다니엘서에는 유대민족이 세계 네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두 번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에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큰 신상(神像)에 관한 환상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 (1) 정금머리
- (2) 은 가슴과 팔
- (3) 놋 배와 넓적다리

* Brookes, J. H.,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심”(God spake all These Words)에서 (St. Louis: J. T. Smith, 1895, p.42).

(4) 철 종아리와 진흙 섞인 철 발.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환상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될 일련의 네 왕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분명히 바벨론입니다. “왕(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곧 그 금머리 님이다”(2: 38).

7장에는 위의 환상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사자

(2) 곰

(3) 표범

(4)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짐승.

이 짐승들도 역시 2장에 묘사된 신상의 네 부분에 상응하는 세계 네 제국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에 관한 또 다른 환상이 나와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것들의 정체는 메데-바사와 헬라라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20,21절).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네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되 오직 그 네 제국의 지배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들이 주어졌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바벨론 제국은 메데와 바사의 용맹스러운 군대에 의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의 통치권을 거머쥐었고, 나중에 그의 제국은 로마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래로 다른 민족들에게 정복 당해 왔지만 그 네 제국 외에는 결코 세계 제국에 의해 정복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예언은 너무나 분명하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소위 좀 배웠

다는 불신자들은, 종교적인 사람이건, 세속적인 사람이건, 다니엘서가 다니엘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다른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록하고,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이란 이름을 그것에 갖다붙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니엘서의 신빙성을 불신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다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증거를 조사해 보기를 원하는 독자가 있다면 전직 런던 경찰국장이었던 로버트 앤더슨 경(Sir Robert Anderson)의 「비판자의 굴에 속에 던져진 다니엘」(Daniel in the Critic's Den)*이란 책에서 매우 유익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예언의 성분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불신자 역사가(歷史家)인 기본즈(Gibbons) 조차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네 제국은 선명하게 개관(概觀)되어 있으며, 천하무적의 로마군대는 쟁스틴(Justin)과 디오도루스(Diodorus)의 역사(歷史)에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듯이 다니엘의 예언에 아주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예언

두로 성의 역사(歷史)는 성경 예언의 성취에 관하여 부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마일쯤 떨어진 이 성은 지중해의 거대한 상업항구였습니다. 이 성의 일부는 본토에 건설되어 있었으며, 다른 일부

* (New York:Fleming H. Revell Co., no date)

** 윌리암 캠리의 다니엘서 강해에서 인용(New York:Loizeaux Bros.), p. 42

는 해안에서 반 마일쯤 떨어진 섬 위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멸망은 기원전 580년쯤에 에스겔 26장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그 예언의 세부사항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그 성은 바벨론 왕에 의해 공격을 당하여 예워싸이게 될 것이다(7절).

(2) 그 돌들과 재목(材木)과 흙은 물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12절).

(3) 그 성은 말간 반석이 되어 어부들이 그물을 그 위에 던질 것이다(14절).

(4) 그 성은 두 번 다시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14절).

세속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 거대한 두로 성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약 13년 동안 그 성을 포위하여 공격했습니다. 그 성이 함락되기 전에 두로 백성들은 본토에서 떨어진 그 섬으로 재산을 옮기고 본토 성읍이 멸망 당한 후에도 그 섬 위에 살면서 강력한 해군력을 동원하여 오랫동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0여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쯤 알렉산더 대제는 세계정복을 꿈꾸며 출정 중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332년에 그의 군대는 두로 해안에 당도했지만 그 섬의 요새는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그 섬에 닿는 방죽길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옛 성읍의 잔해들(돌들과 재목과 흙)을 촉하여 바다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이렇게하여 두로의 옛 성터는 말간 반석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섬 위에 건설된 성을 점령했습니다. 두로의 본토 성은 두 번 다시 건설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그 말간 지면 위에 어부들이 그물을

36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넓어 말리고 있습니다.

수 백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 이처럼 자세하고 정확하게 성취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만족과 쉼을 주는 오직 한 가지 설명은, 만대(萬代)를 쥐고 계신 그분(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 Urguhart, John, *The Wonders of prophecy*(London:pickering & Inglis, Ltd., no date)

제 4 장

성취된 예언들(2)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성경에 나오는 일련의 예언들 중에서 숫자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복되신 우리의 주님을 묘사하는 예언들을 능가할 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계보(系譜)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실 것이며(창 22:18),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것이며(창 49:10), 다윗의 집에서 나오시기로(사 9:7)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탄생에 관해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사 9:7)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미 5:2)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종류의 베들레헴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이스라엘 북부의 스불론 지역에 있었고(수 19:15), 다른 하나는 유다 지역에 있었는데 이것은 에브라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야의 출생지에 관한 예언은 어찌나 정확한지 이 두 종류의 베들레헴도 구별하여,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자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분이 자기보다 앞선 사람(침례 요한)에 의해 소개될 것이며(사 40:3), 성령님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게 될 것이며(사 11:2, 61:1), 그분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38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부터 시작될 것(사 9:1,2)이라 했습니다. 또 그분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하여(시 41:9)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슥 11:12)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는 방식, 즉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것이 구약성경에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수족(手足)이 찔림을 당할 것이며(시 22:16), 범죄자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며(사 53:12),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의 옷을 얻고 자제비를 뽑을 것이며(시 22:18), 쓸개와 초(醋)가 그분에게 주어질 것이며(시 69:21), 그분의 뼈중 하나도 깎이지 아니할 것이며(시 34 : 20), 그분의 옆구리가 찔림을 받게 될 것이(슥 12:10) 예언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외치실 그분의 말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시 22:1). 그분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기로 되어 있었으며(사 53 : 5, 12),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사 53:9)과, 부활하실 것(시 16 : 10)과, 승천하실 것(시 68:18)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무려 1,600년 전에 주어졌으며, 하여튼 모든 예언들은 구주께서 태어나시기 400년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이 짧은 개요로서는 그 목록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예언의 요새(要塞)”(The Stronghold of Prophecy)의 저자인 허버트 스튜어트(Herbert Stewart)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성경의 신빙성과 정확성이 우리의 법정에서 그 성취 예언들을 근거로 하여 심리(審理)를 받는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엄청난 증거에 관하여 공정하면

서도 이성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서 단 하나의 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70 이레(週) 환상

설혹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주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른 한 가지 그분에 관계된 예언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다니엘 선지자는 메시야가 죽음을 당할 시기를 그 연도(年度)와 달(月)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으며, 이 예언은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기 최소한 56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다니엘 9장에 제시되어 있는 이 예언은 실제의 계산을 요하는 하지만 로버트 앤더슨 경(Sir Robert Anderson)은 그 어려운 말씀을 아마도 가장 훌륭히 해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중건(重建)하라는 영(命)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메시야)가 끊어질(실해될) 때까지 69이레(7이레 + 62이레 = 69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레”라는 단어가 연수(年數)를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命)이 공포된 때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는 $69 \times 7 = 483$ 년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41), p. 126

** 오실 왕(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54), pp. 128, 129

40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다사스다의 영(侶)은 B.C. 445년에 공포되었습니다. 윤년에 포함된 여분의 날짜들을 감안하고, 또 B.C.에서 A.D.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조정(調整)을 고려한다면, 결론은 A.D. 32년 4월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바로 이 때 구주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계산에 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로버트 앤더슨 경의 “오실 왕”(The Coming Prince)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10장의 각주(脚註)에는 철저한 계산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과 다니엘의 다른 많은 예언들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성(靈感性)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니엘서가 왜 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의 말씀을 파괴하려는 비평가들의 주요 목표물 중의 하나가 되어 왔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성은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에게 파괴된 이래로 이방인의 지배를 주로 받아왔습니다. A.D. 363년에 배교자이자 사악한 로마 황제였던 줄리안은 기독교를 불신케 할 목적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 역사가였던 기본(Gibbon)은 이 일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지진과 선풍(회리바람)과 화산 분출이 새로운 성전 토대를 뒤집어 엎고 흘어버렸기 때문에 그 공사가 중

단되고 말았다”고 서술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독자적인 정부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국경선이 정해졌을 때 옛 예루살렘은 요르단의 하센 왕국 수중(手中)에 들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재 또 다른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유대 군대는 아랍 군단과 재전투를 벌여 옛 예루살렘 성을 탈취할 각오로 돌격해 들어갔으며, 막 성공하려는 찰나에 있었는데 국제연합(UN)이 개입하여 전투중지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두 군대 사이에 무인지대가 설정되었고, 옛 예루살렘은 여전히 아랍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군대는 옛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주 예수님의 예언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며, 유대인의 예루살렘 관할권은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계속 침공을 받아 이방인의 발굽 아래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계 11:2).

이 말씀은 다니엘의 70번째 이례(즉, “큰 환난”기 자체를 가리킴) 동안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황폐케 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Vol. II (New York: E. P. Dutton and Company, 1919), p. 386

42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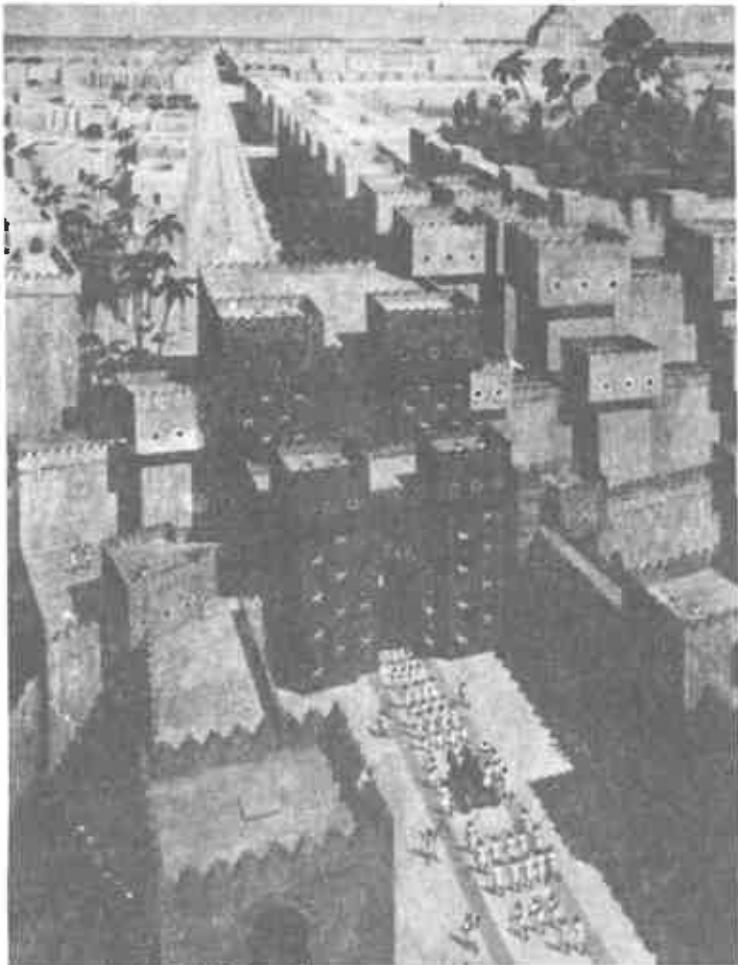
갈릴리의 성읍들에 대한 저주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 동안 방문하신 성읍들 중에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디베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네 성읍들 중에서 처음 세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1~24절에 기록된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디베라는 그런 저주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그 성읍들의 존재는 어찌되었을까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하는 폐허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르며, 이것은 고라신과 벳세다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읍들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그 성읍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만 디베랴만은 오랜 세월의 침략에도 살아남아 오늘날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여전히 번창하는 항구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주께서 공공연히 책망하신 세 성읍은 사라져 버린 반면, 그렇지 않은 다른 한 성읍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에 불과할까요?

요약

이 밖에도 성취된 예언의 사례들을 더욱 많이 들 수 있지만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성경기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C. I. 스코필드(Scofield) 박사는 성취된 예언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무술 동양 연구소 소장)

바벨론의 이스타르 문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들을 통해서 제국의 전성기에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들어 왔다. 이 성은 높이 340 피이트, 넓이 85 피이트(4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임)나 되는 이중 성벽으로 뿐 아니라 깊고 넓은 해자(垓字; 성밖으로 들려 판 호(壕))로 둘러 쳐졌으며 성 한 가운데에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었다. 바벨론의 승리와 최종적인 파멸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

44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성경의 영감성을 확실히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할 때 그 사건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훨씬 오래 전에 예언한 까닭에, 인간의 명철한 두뇌나 통찰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들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예언들은 너무나 자세하고, 엄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운좋은 추측일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벨론, 앗수르, 애굽, 그 밖에 수많은 인물에 관한 혜아릴 수 없이 많은 예언들은 무척 오래되고, 무척 비범하고, 거의 있을 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척 자세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필멸(必滅)의 인간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들은 자연력에 의해 성취되기도 하고, 그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성취되기도 하고, 또는 예언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취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요 14:29).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 허버트 스튜어트(Herbert Stewart)의 “예언의 요새”(要塞) – The Stronghold of Prophecy에서 인용(Londo:Marshall, Morgan and Scott, Ltd., 1941), p. 10

제 5 장

성경과 과학(1)

자금(昨今)에 들어와서 성경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과학분야입니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적 발견들 앞에서도 성경을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거짓되이 일컬는 지식”(...science, falsely so called. 이 영어 표현의 의미는 “소위 과학이라고 잘못 일컬어지는 것”임—역주)을 피하라고 경계했습니다 (딤전 6:20). 따라서 이 경계는 소위 “지식”이라고 잘못 일컬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피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과 참된 과학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의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께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과 전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과학적 “발견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첫째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수를 종종 저지릅니다. 그들은 이론과 사실(실제)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46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ニ이다!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나 잘못된 측정법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임의대로 그 법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또는 그 법칙에 반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과학의 어떤 모순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진의와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론과 사실(실제), 해석과 영감(靈感)을 신중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공부할 때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필자는 성경과 소위 현대적인 “발견들”과의 모순에 관계된 몇 가지 주요한 문제들을 이 책에서 간략하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과 진화론은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시에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까?

지구의 연령을 고려할 때 창조에 관한 기록과 최신의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선사시대의 공룡 화석을 창세기 1장과 어떻게 합치시킬 수 있을까? 인간의 지상출현 시기에 관하여 성경은 고대의 뼈 또는 뺃조각 화석과 모순되지 않을까?

창조의 날짜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일까? 아니면 시대, 또는 무한히 긴 시대를 의미할까?

성경과 진화론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는 현재 4종류의 주된 견해가 있습니다.

(1) 무신론적 진화론은 인간을, 가장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오랜 동안 진화된 우연의 산물로 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생명의 기원(시작)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2)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가장 단순한 생명체를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여 오늘 날의 인간을 만드셨다고 주장합니다.

(3) 점진적 창조론은 유신론적 진화론과 순간적 창조론의 중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여러 번의 창조행위를 요하며, 바로 이 점에서 무신론적 진화론과는 다르지만 기간과 과정에 관계되는 자연법칙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간다고 주장합니다.

(4) 순간적 창조론은 창세기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이 아담을 영(靈), 혼, 몸을 지닌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에 오랜 세월에 걸쳐 하신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필자는 바로 이 견해를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성경과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점들 중의 한 가지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 이 주제를 펌플렛 형태로 훌륭히 다룬 것이 “진화론 편람”(Evolution, A Handbook for Students)입니다(Toronto:International Christian Crusade).

48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이에도 진화론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좀더 단순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진화론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즉, 인간은 저차원적인 생명 형태로부터 현재의 상태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창세기의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독자들은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확연한 창조행위로 아담을 만드시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겸비한 도덕적 성인(成人)으로 단번에 만드셨다는 인상을 즉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진화론을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견해와 성경말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 일례로 T. H. 혁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화론을 끝끝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창 1:26,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원숭이는 조상이 동일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그 동일한 조상을 가리킨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극단적인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32절은 원시인이 (“창세로부터” 20절) 고차원적인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神性)을 자각했었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았던 까닭에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추잡한

* Quoted by Tatford, F. A., *Is the Bible Reliable* (London:Henry E. Walter, Ltd., no date), p. 20.

부도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 묘사된 그 과정은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퇴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완전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생물이 “그 종류대로” 번성해야 한다는 명령이 1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본 원칙입니다. 이종교배(異鍾交配)로 생겨난 잡종(雜種)은 번식을 할 수 없으며, 원상(原狀)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유사 이래로 한 종류의 생물이 다른 종(種)의 자손을 생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G. K. 체스터頓(Chester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빠진 고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빠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 제외하고는, 그 빠진 고리에 관하여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빠진 고리”(the missing link, 즉 유인원과 인간을 이어주는 가상의 동물－역주)는 여전히 빠진(행방불명된,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아닌 존재로부터 진화했음을 보여 주는 진정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 과학자 토마스 H. 혁슬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시점에서 얼마나 시기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하면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과학의 비극은, 아름다운 가설(假設)이 보기싫은 한 가지 사실에 의해 완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Quoted by Pollock, A. J., why I Believe the Bible(London:Central Bible Truth Depot), p. 52

50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화를 반박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고전 15:39). 진정한 과학의 발견치고 이 말씀에 도전하여 성공하거나 혹은 종(種)의 변이(變移)를 입증하는 일말의 증거라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진화가 아담의 발생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이브의 기원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진화론도 자연에 반(反)하여 아담에게서 이브를 생겨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성(異性)의 기원은 특별한 창조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진화는 산술적(算術的)인 어려움도 유발시킵니다. 통계학자들은 인구의 증가비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인구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인류가 진화론자들의 추측처럼 오래될 수는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만일 인간이 수 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면 그 인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조차도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이론”이라는 것이 마치 과학의 정 사실처럼 각급 학교에서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으며, 그 이론에 불찬성하는 학생들은 주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성의 부정직은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성경과 지구의 연령

우리는 종종 “창세기의 기록과, 지구의 연령에 관한 과학의

최신 발견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과학자들은 지구의 연령을 30억 내지 60억년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서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구의 창조 날짜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건에 햇수를 관련시킬 방도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 때문에 과학이 성경을 반증하거나 논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경과 공룡 화석의 연대

공룡의 화석은 창세기 1장 24,25절의 동물 창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시대의 것으로 단정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룡은 창세기의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실, 성경에는 공룡이 창조된 시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룡은 창세기 1장 24절의 동물 창조 이전부터 지상에 생존해 왔었다는 과학자들의 말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공룡이 창세기 1장 1절의 원래의 창조시에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짐승)이 그 때에도 지구상에 있었다는 개념을 부정할 만한 성경구절은 전혀 없으며, 명성있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창세기의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오랜 간격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천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 러스크와 쉬바이처(Rusk and Schweitzer)의 “미국 과학 연맹지”(Journal of the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1956년 3월호 7페이지.

리고 다음 구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으며”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우리 말 성경에는 “하며”로 나와 있음—역주). 그런데 이 구절의 “…했으며”(was)라는 단어는 “…하게 되었으며”(became)라고도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게 되었으며”라는 번역이 오히려 원어의 일차적인 의미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불모지(a waste)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불모지(a waste)로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우리 말 성경에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로 나와 있으나 J. N. Darby譯 성경에는 上記한 바와 같이 나와 있음—역주).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땅의 혼돈을 초래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한 가지 설명은, 그것이 이사야 14장 12~17절과 에스겔 28장 12~19절에 언급된대로 사단의 타락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땅은 대격변을 치른 후에 혼돈하고 공허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공통이 처음의 창조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대격변은 공통이 멸절한 까닭을 밝혀준다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에 관해서는 암시조차 없기 때문에 공통 화석의 연대에 관해

* 쾰勒와 바움가트너(Koehler and Baumgartner)의 “구약사전”(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 229(Leiden:E. J. Brill 1953).

Brown, Driver and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Boston:Houghton Mifflin co., 1907), p.224

서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의 동물 창조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단어는 그 동물들이 각 종류의 처음 동물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그 전에 존재하던 동물이 멸절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공통화석을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6 장

성경과 과학(2)

성경과 인류의 연령

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날짜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는 인간이 B.C. 4000에서 B.C. 8000년 사이에 창조되었음을 짐작해줍니다. 반면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뼈들과 뼛조각들이 대략 500,000만년 전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러 성경에 실려 있는 ‘어셔 대감독(Archbishop Ussher)’의 연대기(年代記)가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이루어진 성경 원문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연대기는 B.C. 4004년에 인간이 창조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족보들 속에, 이 숫자를 조정해야 할 격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 격차로 인해 생기는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현대 과학자들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방법들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것들 중의 하나가 뼈들 혹은 뼛조각들을 결합하여 소위 선사시대의 인류라는 것을 재구성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악용되어 온 사실을 하바드 대학교의 A. E. 후톤(Hooton) 교수는 다음과 같이 시인했습니다.

“어면 해부학자들은 두개골 틀(주물) 위에다 머리와 얼굴의 부드러운 부분들을 조립하여 화석 두개골 모양을 재구성하며, 이렇게 하여 화석 인간의 살아 있는 흥상 모습을 연출해낸다. 하지만 그 두개골들이 대부분 단편적인 상태에 있음과 그 얼굴들이 대개는 상실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심지어 그 재구성된 얼굴 골격조차 세부 사항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있음을 즉시 간파할 수 있다.

스미스 우드워드, 케이쓰, 기타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가지로 재구성된 필트다운인(Piltdown Man) – ‘그 두개골이 1912년 영국 Sussex 주의 Piltdown에서 발견된 선사인. 후에 가짜로 판명되었음’ – 엣센스 영한사전에서 인용)의 두개골은 각각 크게 상이(相異)하다. 하물며 그 부드러운 부분들을 복원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더욱 위험천만한 모험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입술, 눈, 귀, 코 끝은 그 밑에 있는 뼈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로 침팬지의 모양이나 철학자의 인상(人相)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복원된 고대인들은 과학적으로 거의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대중을 오도(誤導)하기 십상이다. 두개(頭蓋)와 이빨 두 세개를 사용하여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 (Pithecanthropus erectus – 類人猿과 사람의 중간, 자바 직립 원인)의 흥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확연한 불합리이다. 우리는 피테칸트로푸스인이나 하이델베르그인, 또한 필트다운인이나 네안데르탈인의 세부적인 모습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 없으며, 그들의 두

발(頭髮) 형태나 두발 분포, 색소 등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구성된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

이제 유명해진 필트다운인의 사례는 그런 과학적 방법들이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잘 보여 줍니다. 그것은 지금 까지 말씀드린대로 재구성된 화석이었는데 1912년 영국의 필트다운 코몬 근처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한 개의 턱뼈로부터 대부분 재구성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그 필트다운인을 50만 년 전의 초기 빙하시대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1953년에 그 턱뼈가 50년 된 원숭이의 턱뼈임이 판명됨으로써 사람들은 깊은 미동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인류학적 발견이라고 갈채를 받던 것이 현재에는 그 시대 최고의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건축, 음악, 철공(鐵工), 그 밖에 문명의 증거들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기원을 B.C. 500,000년으로 잡는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주요 난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치고 그와 같은 형태의 문명이 B.C. 8,000년에서 B.C. 16,000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첫 인류가 C. 500,000년에 생겨났다는 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480,000년 이상의 연수(年數)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4장 사이의 기간으로 압축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지상 출현 연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창세기 서술 및 창세기와 마태복

* Up from the Ape(New York :The Macmillan Co., 1935), p. 332.

** “생명지”(Life Magazine), 1953년 12월 7일, p. 153. 리더즈 다이제스트(The Reader's Digest) 1956년 10월호 p. 179에 실린 “필트다운 대사기극”(The Great Piltdown Hoax by Alden P. Armagnac). J. S. 바이너(Weiner) 박사의 “위조품 필트다운人”(The Piltdown forgery) (New York:Oxford Univ. Press).

*** 베나드 램(Bernard Ramm)의 “과학과 성경에 대한 기독교관”(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6), p. 327.

음 사이의 족보를 감안할 때 그 기간을 무려 50 만년으로 높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창조시의 하루는 시대인가 1일인가?

창세기 1장의 하루는 24시간으로 구성된 문자적인 하루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긴 기간이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누가 어떤 견해를 취하든 간에 성경의 영감성(靈感性)을 공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영감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의 주제를 이 책자에서 자세히 논하기란 불가능하기에 흔히 주장되는 몇 가지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나서 그 중에서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견해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의 하루가, 그 기간을 얼마나 지정할 수 없는 연대(年代)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창조의 하루를 계시의 하루(days of revelation), 다시 말해서 시간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의 내력을 계시하시되 일곱 하루 혹은 일곱 단계의 그림으로 계시하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창조의 하루가 24시간으로 구성된 문자적인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합니다. (1) 아담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창 1:26~31). 그 다음은 일곱째 날이었는데 아담은 그 일곱째 날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살았습니다. 만일 그 일곱째 날이 천 년이었다면 아담은 분명히 천 년보다 더 오래 살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가 930세까지 살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창 5:5). 그러므로 일곱째 날 하루는 어떤 연대가 될 수 없고 태양일이었습니다. (2)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째 날(하루)이니라”는 표현을 6번 볼 수 있는데 이 저녁과 아침은 태양일의 한계이지 연대의 한계가 아닙니다. (3) 출애굽기 20장 8~11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창조의 일 주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는 일 주일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 주일은 일곱 태양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하루는 연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요컨대 하나님은 최초의 과학자이자 유일하게 무오(無誤)하신 과학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비밀을 그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놀라운 발견들에 대하여 교만한 자세를 취해 오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 유명한 천문학자 케플러(Kepler)는 혹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에 관계된 법칙들을 발견했을 때 경배심으로 충일(充溢)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다음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 관한 사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들 중의 일부가 과학자에 의해 밝혀질 때마다 그 모두가 성경에 이미 묘사되어 있거나 최소한 암시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G. M. 펠버(Pember) 씨는 그의 저서 ‘지구의 초창기’(Earth’s Earliest Ages)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과학이 성경의 정보에

의거하여 발전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에는 신비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과학자들이 우주의 법칙을 더욱 잘 파악해 감에 따라 그 진리도 함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몇 가지 사례로 다음과 같은 발견들을 들 수 있습니다. 공간에 달린 지구(욥 26:7), 구상(球狀)의 지구(욥 22:14, 사 40:22, 잠 8:27), 지구의 자전과 공전(욥 38:32), 구름의 밀도(욥 28:24~26), 번개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비(시 135:7). 이 밖에도 성경에는 과학의 진리에 관한 언급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과학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 성경

성경은 참된 과학의 확증된 발견들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진리는 결코 진리와 모순될 수 없습니다(요 17:17). 성경이 현대 과학의 계속 변하는 이론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Oswald chambers)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성경이 만약 현대 과학에 동조한다면 얼마 안가서 고물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자연히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계속 변하는 과학의 발견들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은 심히 명예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과학의 사당(詞堂)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

* A. J. 폴록(pollock)이 “내가 성경을 믿는 이유”(Why I Believe the Bible)에서 인용(London:Central Bible Truth Depot, p. 52).

과 그분의 말씀이 심리(審理)를 받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내려
져야 할 평결(評決)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롬 3:4). 만약 과학자들이 성경과 분명히
모순되는 어떤 발견을 제시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조
금 더 연구하게 합시다. 그들이 조금 더 계몽된 마음으로 그 문
제를 다시 다룬다면 어려움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진 -H. 앤스트롱 로버트)

안드로메다좌(座)의 거대한 나선형 성운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또 별들을 만드시고”라는
네 마디로 별들의 창조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
의 영역 안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 말할 때는 언제나 정확하다. 그것은, 그것이
언급하는 별들의 이름과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며, 태양 중심의 천체조직을 제
시하며, 그것이 언급하는 성운들을 적절히 묘사함으로써 천문학의 올가미를
피하고 있다.

제 7 장

반복되는 역사

하 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초의 공격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방법을 사단은 오늘 날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간계를 연구하여, 그것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든 간파하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몹시 중요한 일입니다.

의심

사단이 취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 하시더냐?”라고 말했는데(창 3:1) 이것은 성경 기록상 사단의 최초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학교나 신학교 등 각처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브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 넣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회의를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상 그는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더욱 깊은 죄로 몰아가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릇된 인용

사단의 두 번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오직 한 나무의 실과를 빼놓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 2 :16,17). 그런데도 마귀는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더욱 성취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마귀는 자기 손에 성경을 쥐고 있을 때 가장 사단적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성경말씀을 잘못 인용하거나 첨가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을 빼먹기도 하고, 또는 교묘히 왜곡하여 사람들을 속이거나 오도(誤導)하기 때문입니다(마 4:6과 시 91:11~13을 비교).

부인(否認)

두 번의 시도에 다 성공을 거둔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부인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 만일 사단이 이 대담한 공격을 처음부터 시도했더라면 아마도 그는 필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먼저 의심을 불어 넣음으로써 교활하게 시작했으며, 그런 다음에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했고, 이제는 그의 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감히 자신의 창조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이 진전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비난함

지금까지의 시도에 성공을 거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공의에 회의를 던짐으로써 자신의 이점(利點)을 더욱 이용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창 3:5). 이와 같이 하여 사단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아님 아닐 것입니다.

대체(代替)시킴

마침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대체시켰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창 3:5). 사단은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일에 훌륭한 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조품 하나님(즉, 돈)을 가지고 있고, 모조품 성경(즉, 많은 이단 선지자들의 거짓 경전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조품 복음(즉,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지고 있으며, 모조품 교회(즉, 사단의 회당)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단들은 오늘날에도 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어디에서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십니까?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나 영원한 형벌이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까?” 에덴의 그 사건을 회상시켜 주는 이 모든 반문들은 다 동일한 존재(사단)에게서 나왔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64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경고를 받으면 미리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궤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고후 2:11). 사단이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지라도 그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의 숨은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고후 11:14). 우리는 성경에 관해서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의심(회의)이 제기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것들이 거짓의 아비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들을 쳐부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죽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 요 8:44).

비평가들에 대한 도전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우둔한 남녀들을 통해 그 옛날의 거짓말을 지금도 여전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허세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말하며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비평가들에게, 성경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다음과 같이 자문(自問)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 이 어떤 책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신다면 그것은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될까?”

우선 그 책은 무한성(無限性)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저자이신 하나님에 걸맞게 그 책의 내용 역시 무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그 책의 깊은 내용을 파악하

려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진리와 신비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책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감안할 때 우리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의 책이 인간의 지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 책의 근본적이면서도 중대한 진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될만한 것들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 책을 주신 그분의 목적 일 터인데 그분이 자기 목적을 파기하실 리는 만무합니다.

반면에 그 책의 비밀들은 그저 호기심이나 어정쩡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그들에게 이해된다면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자기들의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 떠벌리고 다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책은 세상의 기원이나 죄와 죽음의 문제, 죽음 너머의 세계 등 갖가지 신비한 사항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 속에 인간의 이성을 범하는 어떤 모순이나 착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책에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테지만 참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책은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지 약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옥 자기 자신(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계시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특성들을 더 많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이 이 모든 사항들을 만족시켜 줍니다.

성경의 진리 중 어떤 것들은 충분히 파악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 예로는 삼위일체에 관한 교훈이나 영원에 관한 개념, 또는 한 분(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땀장이－존 번연, 노예상－존 뉴톤, 그 밖의 평범한 계층에 의해서 깨달아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신 지식층들은 그 가르침에 넘어졌으며, 그것을 불가해한 지껄임 정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를 찾아 비난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단 하나라도 실책이나 모순을 입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성있는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는 미워하게 하고 거룩은 사랑하게 합니다. 그 영향은 언제나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말씀드린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경 비평가보고라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오, 하나님!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만일 제가 악한 죄인이라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시라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아멘.” 마음 속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히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절대적인 신빙성을 반드시 확신하게 될



(사진 – 이스라엘 관광 공사 제공)

시험의 산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자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이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이와서 수종드니라”(마 4:1~11).

68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 그리고 이 약속 뒤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제 8 장

성경의 난해한 문제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상고하면서도 어떤 문제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성경을 믿지 않을 목적으로 온갖 구실을 찾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자연히 해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지하고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위배되는 답변을 들으면 그 답변이 적절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고집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불가지론자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에 관하여 변론을 했었는데 결판이 나지 않자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확실히 증명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후부터 그분을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만에요!” 불가지론자의 이와 같은 대답을 듣고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변론을 별일 필요가 전혀 없겠군요.”

지금부터 우리는 흔히 제기되는 성경의 난제들 중에서 몇 가

70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아내

간단히 대답하면 “그는 자기 누이들 중 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우리는 “아담이… 자녀를 낳았으며”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자기 누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던 때였으며,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누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번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친결혼이 하나님에 의해 금지된 것은 나중 일이었습니다(레 18:6,9).

가나안 사람들의 멸절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신 20:16~18). 그런데 바로 이것 이 성경에 대한 반박의 도구로 종종 사용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반박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포학무도한 죄인들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왕상 21: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이나 참으시다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貫盈)하자 그들의 더러운 우상숭배와 부도덕을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벌하는 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데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이교도들의 악행으로 인해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신 20:18). 오늘날의 의사들이 몸 전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썩은 수족을 몸에서 절단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온 땅이 그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이교도들을 절단하셨던 것입니다(신 9:5).

구약성경의 일부다처제

구약성경의 기자들은 라멕으로부터 시작된 일부다처제의 습관을 성실하게 기록했습니다(창 4:23).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남자가 한 아내를 갖는 것이며(마 19:4,5,8하), 일부다처제는 결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문제

고고학적 발견들이 성경을 불신하는 것으로 묘사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널리 팔린 한 저서는 성경의 땅에서 발굴된 위대한 발견들을 검토하고나서 “하여간 성경은 정확합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각주(脚註)에 제시된 유익한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워너 키러(Werner Keller)의 “역사(歷史)와 성경”(The Bible as History) (New York: Wm. Morrow and Co., 1956), p. 25.

요나와 큰 물고기

이 문제는 비평가들의 주요 과녁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삼킬만한 큰 고기와 그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생존했다는 기록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고래에게 삼켰으면서도 그 속에서 생존했던 사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나의 사건으로부터 기적적인 요소를 결코 제외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는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다 기적이었으므로 그대로 놔두는게 합당합니다.

동정녀 탄생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도 역시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곧, 자기들의 생애 가운데서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동정녀의 자궁은 단지,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빠져 나온 대기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 J. G. 매켄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The Virgin Birth of Christ) 참조.

그리스도의 부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비평가들은 결코 공격의 화살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복잡한 마음은 부활의 사건에 관하여 수없는 이론들을 만들어냈으며, 마태복음 28장 11~15절에는 그것들 중에서도 최초의 이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론들은 성경의 단순한 진술에 의해 스스로 박살나고 맙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포괄적인 공부를 하기 원하는 독자들은 월버 스미스(Wilbur Smith)의 “그러기에 요지부동”(Therefore Stand)이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형벌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영원한 형벌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J. N. 다아비(Darby)는 영원한 형벌**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마 3:10,12; 5:22,29,30; 6:15; 7:13,23; 8:12; 10:28,33;
11: 22; 12:31,32; 13:40,41,49,50; 18:8,9; 22:13;
23:33; 25:46; 26:24.

* (Boston:W. A. Wilde Co., 1945), p. 359.

** J. N. 다아비(darby)의 “영원한 형벌”(The eternity of Punishment)과 F. W. 그랜트(Grant)의 “장래에 관한 사실과 이론”(Facts and Theories as to a Future State) 및 “인간과 그 장래”(Man and the Future State), 또 J. L. 밸로우(Barlow)의 “영원한 존재”(Endless Bein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4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막 3:29; 8:36; 9:43,44; 16:16.
눅 12:4,5,9,10; 16:19~31.
요 3:3,15,36; 5:29; 6:53; 8:24.
행 1:25.
롬 1:18; 2:5~16; 9:22.
고전 1:18; 3:15.
빌 1:28; 3:18.
살후 1:8~10; 2:10~12.
딤전 6:9.
히 6:6; 10:26~31; 10:27.
약 5:20.
벧후 2:9,17,21; 3:7.
요일 5:12.
유 13절.
계 14:9,10,11; 20:10~15; 21:5 ~8.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보존해 두시는 것은 그분의 속성과 일치할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형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아무도 멀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러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다 거쳐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의도적인



(사진 – 이스라엘 관광공사 제공)

가버나움 회당의 잔재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께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마 11:23).

이것은 문자적으로 성취된, 주 예수님에 의해 발해진 예언들 가운데 하나이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밖에 갈리리 성읍들도 그분께서 예언하셨듯이 파멸되었다(마 11:20~22). 주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 근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읍으로 디베랴가 있었는데 이 성읍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저주도 선포하지 않으셨으며, 의미심장하게도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 성읍은 잔존해 있다.

76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선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다 이루신 사역을 등한히 여기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영원한 숙명을 결정지을 때를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비판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는데서 비롯되며, 주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비평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마 22:29).

린튼(Linton)은 “성경을 심리(審理)한 법률가”(A Lawyer Examines the Bible)*란 자신의 책에서 단언하기를, 자기가 만난 불가지론주의 법률가들 중에서 성경의 진리에 대한 반증(反證)을 읽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의 진리를 밝혀주는 증거를 읽어 본 각 불가지론자들은 자신의 불가지론을 포기하든지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외관상 몇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은 번역의 부정확성에 기인합니다. 또 어떤 난제들은, 성경이 시대에 앞서 있으므로 세상의 지식이 그것을 뒤쫓지 못하는 까닭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 성경에 난제들을 철저히 다룬 J. N. 다아비(Darby)의 “불신의 비합리성”(The Irrationalism of Infidelity)을 참조하십시오.

제 9 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불가능한 작업

성경의 영감성(靈感性)을 입증하는 가장 중대한 증거들 중의 하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결코 쓸 수 없는 전기(傳記)입니다. 사실,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의 생애를 창작하기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영웅의 성격에서도 어딘가에 흠이 드러날 것이며, 완전한 기준 이하의 언행심사가 발견될 것입니다. “악한 인간은 완전한 인물과 완전한 생애, 완전한 책을 창작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인간은 그것들을 날조해내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그분의 생애만큼 놀라우며, 이 둘 다 하나님에 관하여 잘 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인간의 고안물에 불과하다면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역사(歷史) 가운데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무력이나 뇌물을 쓴 일도 없이, 무기나 금전을 사용한 일도 없이 그분이 세상에 그처럼 깊은 자국을 남기신 것은 도대체 어찌 된 셈입니까? 그분은 누구셨으며,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유사(有史) 이래로 그분과 같

은 인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것은 어찌된 셈입니까? 그들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직 계시종교의 중대한 원칙,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시며, 그분의 복음이 철저히 사실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 위에서 사신다면 어떤 모습을 지니실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목격담을 제공하고 그분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자 동시에 철저한 인간이시기도 했던 그분의 비할 바 없이 완전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날조해낸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단순히 묘사했습니다(요일 1:1). 그들이 묘사한 인물이나 그들의 기록에 동기를 부여하신 분은 다 주님 자신입니다. 오로지 완전한 존재만이, 완전한 존재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으며,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심히 타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한 사람은 불신자였던 미국인 테오도르 파커(Theodore Parker)였습니다. “세상으로 늘어뜨린 예수님의 그림자로 그분을 헤아려 보십시오. 아니, 세상을 비춘 그분의 빛으로 그분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한 분이 세상에서 산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그 모든 이야기가 허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플라톤이나 뉴튼이 전혀 실존하지 않았었다고 가정합시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작품은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뉴튼의 작품은 뉴튼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

* J. C. 라일(Ryle)의 “거룩”(Holiness)에서 인용(London: Jas. Clarke and Co., Ltd., 1956), P. 295

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조차 지적한 것처럼 4복음서의 기자들이 서로 작당하여 그처럼 숭고한 인물을 날조해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날조해내려면 하나의 기적 아닌 네 개의 기적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앤더스 경(Sir Robert Anderson)이 말한 것처럼 “만일 복음서의 영감성을 부인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그 기자들의 재능을 훨씬 더 크게 부각시켜 줍니다.” 그리고 공공연한 불신자이자 탕자였던 루소(Rousseau)조차 다음과 같은 평결(評決)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역사(歷史)에 관한 주제를 제공하는 일보다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합작해내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그 유대인 저자들은 어법(語法)에 유능하지 못했으며, 복음서에 포함된 도덕성에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 진리는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어찌나 놀라운지 만일 그것을 날조해냈다면 그 날조자는 영웅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일 것이다.”***

완전한 인격

신약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 관한 것은 모두 절대적인 완전 그대로입니다. 그분의 인격에는 흠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 A. J. 폴록(Pollock)의 “내가 성경을 믿는 이유(Why I Believe the Bible)에서 인용(London:Central Bible Truth Depot, p. 73).

** A. 렌들 쇼트(Rendle Short)의 “바위 아래”(The Rock Beneath)에서 인용(London:Inter-Varsity Fellowship, 1935, p. 28).

*** J. H. 브룩스(Brookes)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God Spake All These Words)에 인용됨(St. Louis:J. T. Smith, 1895, p51).

법치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요일 3:5)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고후 5:21). 그러기에 그분은 가장 거룩한 자기 제자조차 감히 하지 못하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요 8:46).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혹은 “나는 그렇게 추측한다”라는 말을 그분이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따위의 무지의 인정(認定)은 그분의 신성(神性)이 거짓임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변명을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미안하다”라는 말을 결코 하신 적이 없습니다. J. G. 벨렛(Bellett)이 말한대로 “자신의 말을 다시 살펴본다든지, 자신의 발걸음을 다시 추적해 보는” 일은 그분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고귀한 성품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사랑이든, 친절이든, 겸손, 인내, 온유, 정직, 절제이든, 다른 어떤 미덕이든 그분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모든 미덕들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또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친절보다 정직이 더 두드러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겸손보다 인내가 더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구주에게서는 이 모든 특성들이 각각 충만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미덕들이 온전히 섞여 있어서 조화있게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음 현장에서 불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표현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

*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영광”(The Moral Glory of the Lord Jesus Christ)(New York:Loizeaux Bros).

지 아니하노니” – 이것은 은혜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 이것은 진리입니다(요 8:11).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7).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서 어떤 미덕들을 우리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에게는 그 미덕들이 평범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이상(理想)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용기와 진실과 경건한 열심은 당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분의 성품 중 적어도 세 가지 특성만은 그들의 평가에 생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애국심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범세계적 사랑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애정이나 사회적, 부족적 교제 따위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 인종이나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의 실제적 잠재적 원수들까지 포함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가운데서, 그 시대가 식별하지 못했던 또 다른 특징은 용서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감정은, 로마에 있는 술라(Sulla) 기념비 위에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유익을 주었든지, 혹은 어떤 원수가 나에게 해를 끼쳤든지, 하여간 나는 그것에 대하여 이자까지 지불했노라.’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인 사람들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그분은 겸손의 미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무지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으며, 그들의 선생님과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으로 더러워진 그 발을 씻어 주셨고, 밤새껏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반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성(人性) 속의 신성(神性)

한 분 속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분은 일부는 하나님이자 일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잠시 후에 그분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요 11: 35,43,44). 또 그분은 어선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외침소리에 깨어나 사나운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막 4:38,39).

주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들 중의 하나로 흔히 인용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요 20:30,31). 이것에 대하여 비평가들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특별한 점이 아니라고 말하여 구주를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그처럼 오랫동안, 그처럼 많이 행한 존재가 그분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하자 그분은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달리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요 6:15).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도덕적으로 합당한 상태에 있지 않은 백성을 다스리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올라 그들을 다스리시기 전에 먼저 회생의 제단으로 나아가 인류를 구속(救贖)하셔야만 했기

* A. 렌들 쇼트(Rendle Short), op. cit., p. 31.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완전

극단적으로 격앙시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인내하시는 구주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마 26:62,63). 자기에게 전혀 집착하지 않는 그분의 모습은 다른 인간과 뚜렷이 대조됩니다(눅 23:33,34). 또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공공연히 꾸짖으심으로써 그들의 중요성을 격발시켜, 결국 자기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게 할 줄 아시면서도 이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마 23:13,14).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묻자 그분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요 8:25).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 온 것과 똑같은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부과하신 그것을 몸소 온전히 실천하여 본을 보이셨다는 뜻이며, 이 점에 있어서도 그분은 절대적으로 독보적인 존재이셨습니다.

그분이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분의 완전한 덕성(德性)과 일치한다고 벨레트(Bellet)는 지적했습니다(요 6:12). 과연 어떤 인간이 이런 내용을 가필(加筆)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항상 선을 행하시면서도 그 보답으로 친절을 받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눅 23:34). 이 복되신 분은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실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아시면서도 그것을 불필요하게 드러내어 사람들을 당황케

84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지 않으셨는데(요 2:25),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 중에서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변하는 세월 속에서도 그분은 전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와는 달리 변덕스러운 기분에 지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셨으며, 관용하셨으며, 온유하셨으며, 의로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바울은 디모데에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시고”라고 기록했는데 (딤전 3:16) 이 말은 피조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생애는 그 자체가 만대(萬代)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만일 누가 성경의 신빙성에 관한 증거를 요구한다면 그분의 생애에 관한 묘사로써 족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절제

그러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4복음서의 기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생애를 서술할 때 경탄의 표현이나 극찬의 말을 함이 없이 서술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A. T. 쇼菲尔드(Schofield)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훌륭한 행동들을 자유로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며, 그러한 공부를 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용솟음치는 찬미를 표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들에게는 이러한 허락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며, 저는 이것이 성경의 축자 영감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펜은 성령님께 꽉 붙잡

힌 바 되어 단 한 마디의 경탄이나 친양 혹은 경이에 대한 평가 조차 없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단순히 기록했으며, 하나님의 말 씀은 이처럼 놀립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정중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떠한 펜이라도 그와 같은 생애를 기록할 때는 끊임없는 경탄의 말이 없이 놀라운 인물을 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거니와 그들에게는 금지되었던 사향이 우리에게는 자유로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제약없이 그리스도를 경배(예배) 할 수 있습니다.*

구주의 놀라운 생애는 “고독했던 어느 일생”(One Solitary Life)이라는 작자미상의 기사에서 잘 포착되었습니다.

“한 이름없는 마을에서 농부 아내의 자식으로 태어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마을에서 성장했는데 30세까지는 목공소에서 일하다가 그 후 3년간은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책 한 권도 저술하지 않았으며, 사무실도, 집 한 캔도 결코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가족도 없었으며, 대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2백 마일 이상을 여행해 본 적도 없으며, 위대한 인물에게 흔히 수반되는 어떠한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자기 자신이라는 신임장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청년이었을 때 여론의 흐름은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벗들은 달아나 버렸고, 그분은 적들에게 넘겨져 조롱의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십자가에 못박

* “영혼의 양식”(Soul Food)의 “동일한 형상”(The Same Image) 장에서 인용 (London: Pickering & Inglis, Ltd.).

혀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숨져가고 있을 때 그분을 처형한 자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던 그분의 곁을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도박을 했습니다. 드디어 돌아가신 그분은 한 친구의 동정으로 빌려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어언 19세기가 흘러갔지만 오늘날에도 그분은 여전히 인류의 중심 인물이시며, 진보의 기둥의 선구자이십니다.

모든 군대의 행진과 모든 해군의 항해, 모든 의회의 토론, 모든 군왕의 통치를 다 합친다 해도 그 고독했던 일생의 영향만큼 인류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나는 인간들을 안다. 그리고 그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천박한 마음은 그분과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의 유사점, 또는 그분과 다른 종교의 신(神)들의 유사점을 발견해냈다고 말하겠지만 그런 유사점은 현재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그분 속에 있는 것은 모두 나를 놀라게 하며, 그분의 뜻은 나를 당황케 한다. 그분과 세상의 어느 누구를 비교한다면 어떠한 조건으로도 비교될 수 없다. 그분은 참으로 독보적인 존재이다.”*

“주 예수님의 본체는 계급이나 인종, 성별을 막론하고 영혼 하나하나를 사로잡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며, 남녀노소의 편견이나 무관심을 깨뜨리는 것은 성경 진리에 대한 증거도 아니고, 성경의 지혜나 혹은 문학적인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것은 바로 그분의 본체(그분 자신)－온 역사(歷史)를 통틀어

* J. H. Brookes, op. cit., p. 51.

한 인물의 생애—주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나인과 두로와 시돈과 베다니와 예루살렘과 겟세마네와 갈보리와 엠마오와 갈릴리 바다의 이른 아침과 거룩한 산과 승천의 예수님입니다. 모든 통회하는 마음의 이상(理想)이자 소망이 되어 온 그분의 거룩한 가르침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바로 그분 자신이며, 우리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며, 가장 악한 사람조차 보지 않고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 A. T. 쇼필드(Schofield)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하심”(Christian Sanity)에서 인용
(New York:A. C. Armstrong and Son, 1908, pp. 132-133).

제 10 장

주 예수님의 족보

메시야의 혈통

성경의 영감성(靈感性)에 관한 놀라운 증거를 우리는 주 예수님이의 족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메시야에 관하여 명백한 예언들과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조건들이 구약의 전 기간에 걸쳐 주어져 있으며, 그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씨)이어야만 함(창 22:17, 갈 3:16).
- (2) 그분은 유다 지파이어야만 함(창 49:10).
- (3) 그분은 다윗의 가계(家系)에 속해야만 함(삼하 7:13).
- (4) 그분은 다윗의 위(位)를 차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로 소유해야만 함(사 9:7).
- (5) 그분은 처녀에게서 탄생해야만 함(사 7:14).
- (6) 그분은 하나님�이어야만 함(사 9:6).

구약시대에는 사단의 사주(使嗾)를 받은 인간들이 메시야의 혈통을 차단하려고 계획적으로 여러번 시도했는데, 그 예로,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남아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왕(출 1:22)과 왕의 모든 씨를 멸하려고 시도했던 아달랴(왕하

11:1)를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자에 관한 약속과 그 합당한 조건들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통제하셨으며, 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데에 기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성경의 놀라운 드라마들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

여기서는 단 하나의 예(例)만 들도록 하겠는데 그것은 “족보의 기적”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고니야에게 임한 저주가 어떻게 모면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그에게 하셨습니다(시 89:4).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 다윗의 위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삼하 7:13)과 (2) 그의 씨(그의 친 자손들)가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삼하 7:12)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 직계 자손들이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되리라는 보증을 무조건적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약속들은 장차 오실 메시야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보좌에 앉는 권한은 오직 한 아들 곧 솔로몬에게 넘겨졌습니다(왕상 1:30).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이스라엘의

90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다윗의 자손들 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목록에는 마리아의 약혼한 남편 요셉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16절 참조).

- | | |
|----------|----------|
| 1. 솔로몬 | 14. 여고냐 |
| 2. 르호보암 | 15. 스알디엘 |
| 3. 아비야 | 16. 스룹바벨 |
| 4. 아사 | 17. 아비훗 |
| 5. 여호사밧 | 18. 엘리아김 |
| 6. 요람 | 19. 아소르 |
| 7. 웃시야 | 20. 사독 |
| 8. 요담 | 21. 아킴 |
| 9. 아하스 | 22. 엘리웃 |
| 10. 히스기야 | 23. 엘르아살 |
| 11. 므낫세 | 24. 막단 |
| 12. 아몬 | 25. 야곱 |
| 13. 요시야 | 26. 요셉 |

저주

이제 위의 목록에서 14번째 인물인 여고냐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그의 이름은 또 “고니야”로도 칭해졌습니다). 예레미야 22:30을 꿰보면 그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를 저주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無子) 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位)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이 저주가 꼭, 고니야가 전혀 무자(無子)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며, 오히려 그의 자손 중 아무도 다윗의 위(位)에 앉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상과 같이 그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돌아가 보면 마리아의 약혼한 남편 요셉이 고니야의 직계 자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손이었으므로 다윗의 위(位)에 오를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니야에게 내려진 (그의 자손은 아무도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는) 저주 아래 있었던 까닭에 다윗의 위(位)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주 예수님이 만일 요셉의 진짜 아들이셨다면 그분도 역시 고니야에게 내려진 저주 아래에서 다윗의 위(位)에 결코 앉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다음과 같이 도저히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세 가지 조건들을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1) 주 예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그의 씨가 그의 위(位)에 앉으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반드시 다윗의 직계 자손이셔야만 함.

(2) 또 그분은 다윗의 위(位)에 앉을 권한을 계승하기 위해 고니야의 자손들 중에서 합법적인 자손이셔야만 함.

(3) 그러면서도 또 그분은 고니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기 위해 고니야의 진짜 자손은 아니셔야만 함.

문제의 해결

과연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으로부터 요셉까지의 왕위 계승 계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요셉의 진짜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구주의 탄생까지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와 전혀 동침치 않았기 때문입니다(마 1:25). 하지만 요셉이 주 예수님을 자기 양자로 삼았기에 주님은 다윗의 위에 앉을 권한을 합법적으로 계승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요셉의 진짜 아들은 아니셨을지라도 그의 법적인 아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야는 다윗의 직계손이어야만 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윗의 직계 자손이었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누가복음 3:23~38의 마리아 계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직계 자손이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권 계보(여기에는 저주받은 고니야가 포함됨)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31절 참조). 그리하여 고니야가 받은 저주는 마리아나 또는 마리아의 자녀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상을 요약한다면, 주 예수님은 마리아의 실제 아들이며, 다윗의 직계 자손이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그의 위에 앉을 아들을 항상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주 예수님은 (양자로 삼으신바 되어)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셨으므로 다윗의 위(位)에 앉을 합법적인 권한을 계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요셉의 진짜 아들이 아니

셨기에 고니야에게 입한 저주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누가 상황을 이토록 놀랍게 조정하셨을까요? 오랜 세월의 인간 역사(歷史)에 걸쳐 그와 같은 계획이 작용했다면 이것은 곧, 그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역사(役事)입니다. 어떠한 인간이라도 메시야의 혈통을 이와 같이 계획하고 주관하여, 그 모든 약속은 약속대로 성취하면서도 동시에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피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 11 장

구원의 복음

인간에게 걸림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성경의 신빙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성(靈感性)을 입증하는 가장 중대한 증거 중 하나로, 그것이 계시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인간이 매우易于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복음 메세지도 인간이 작성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는 인간에게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초청이 있은 후부터 인간들은 줄곧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오고 있으며(눅 16:16), 이것은 기이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메세지가 육(肉)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의 거치는 것”(갈 5:11), “전도의 미련한 것”(고전 1:21), “거리끼는 것”(고전 1:23). 십자가는 도덕에게도 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철학에게도 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마음에 호소하지, 이성(理性)에 호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에게도 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진리가 어린 아이에게 계시되기 때-

문입니다. 특권 계급에게도 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지(意志)에게도 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진리가 무조건적인 굴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타격

복음 전하는 자가 사람에게 먼저 말해야만 하는 사항들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잃어진 상태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롬 3:10~18).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게 됩니다. 그는 이웃보다 자기가 더 선하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선하지는 못하다는 말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완전히 부패한 자라는, 진실된 말을 도저히 참지 못하기에 성령이 그 영혼을 다루시지 않는 한 결국 그는 그리스도인의 메세지를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 역시 그의 자아에 타격을 줍니다(눅 13:3,5). 이 사람은 혹 자신의 독립심을 늘 가치있게 여겨왔거나 또는 풍부한 재력(財力)의 사업가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사람, 혹은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만약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가 지금까지 믿어 왔거나 믿고 싶어하던 모든 말과 전혀 모순처럼 들립니다(요 5:40).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 역시 쓰디쓴 악이기 때문에 삼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렘 10:23). 구원을

96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받기 위해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의(義)는 다 더러운 옷같다”는 말씀은 실로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사 64:6).

유일무이한 구주

또 그는,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밖에 안 계시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요 14:6). 이것 역시 종교적으로 관대하고 철학적으론 대범한 사상을 지니고 있는 그를 견드립니다. 오직 기독교가 유일 무이한 참 신앙이라고 주장하면 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소위 “넓은 마음”을 더 원하며, 모든 종교 속에는 어느 정도 선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에 관계된 중대한 가르침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 것입니다. 그는 동정녀 탄생을 매우 비합리적으로 생각할 것이며(마 1:18),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되시고 동시에 사람도 되신다는 사실을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입니다(딤전 3:16).

주 예수님이 그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대속(代贖)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가르침이 그에게는 공명(公明)하지 못하게 여겨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들을 구속(救贖)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도 그의 예리한 감각에 위배될 것입니다(갈 2:20, 벤 전 1:18,19). 문자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역시 그에게는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경험 밖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5:20).

유일무이한 길

그는 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없다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6:47) 이것 역시 그에게 불쾌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를 떠받치고 있던 지주(支柱)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태까지 자신의 “좋은 성격”과 선행, 교회 출석, 사회적 명성 등을 의지해 왔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개하는 죄인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일만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일이 아니라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대하여 해야 할 이성적이고도 논리적인 길입니다.

자만을 꺾는 또다른 사실

게다가 이것도 그를 진토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그는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멀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6~29).

이와 같이 그가 소개받는 믿음의 세계는 사회적 위신이 중요하지 않은 세계요, 그의 동료가 될 사람들은 주로 노예나 어부,

98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처럼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주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엄격한 조건들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은 인기가 없기에 많은 추종자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형성되는 어떠한 관계보다도 자기(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눅 14:26).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자기(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4:33). 그분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권리”를 부인하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눅 9:23,24). 또 그분은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요 16:33)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펁박을 받게 될 것(딤후 3:12), 그리고 불 같은 시험이 흔히 닥칠 것(벧전 4:12)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한적 요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이상과 같이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훌륭한 응변가라면 사람들을 기독교의 깃발 아래로 많이 모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도리는 그 뗏세지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로, 복음 전하는 자는 결신자를 얻기 위해 자신의 힘을 전혀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까닭은 구원이 전혀 “사람에

께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요 1:13). 둘째로, 그는 청중이 그릇된 동기로 이끌리지 않도록 자신의 응변술이나 수사학적인 언변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흐리게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고전 1:17, 2:1,4). 셋째로, 복음 전하는 자의 전도 결과는 그 자신의 거룩한 삶(요 15:4)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지원(고후 1:11), 그리고 그의 맷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행 17:32). 끝으로, 그의 사역 결과는 성령의 주권적 활동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요 3:8).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저 복음에 동의하거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면 복음 전하는 자는 하루 동안에 그런 “결신자”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그러하듯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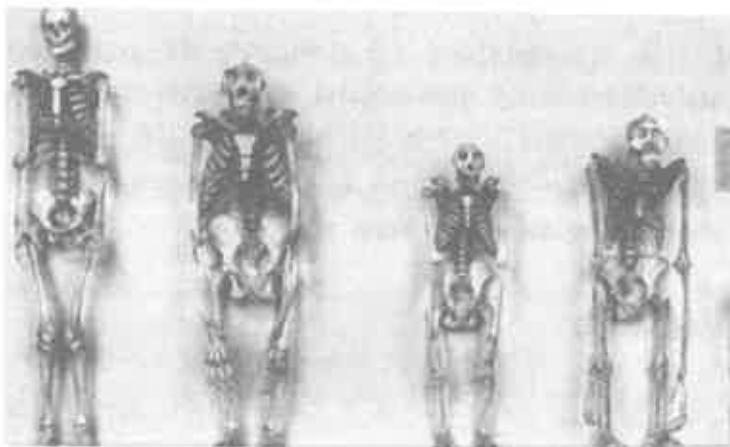
복음의 승리

재삼 말씀드리거니와 복음의 맷세지나 그 전달 방법은 전심 추종자를 어디서건 전혀 얻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만약 실패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면 복음 맷세지와 같은 것은 결코 구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불리와 난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복음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많은 연약 가운데서 전해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수없이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국가, 문화,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죄인들

100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은 그 복되신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을 만유의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이 어떤 인간에 의해 고안된 산물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성립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임을 복음 스스로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진화론을 지지하는 듯이 보이는, 박물관에 전시된 인류의 유골과 가상 유골들

진화론은 성경적인 구원론의 핵심부를 공격한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밝히 선언하고 계신다(롬 5:12,19).

성경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이 타락한 인류의 우두머리로 소개되어 있다. 주 예수님은 구속받은 남녀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인류의 우두머리이시다. 진화론은 아담과 그의 후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까닭에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이론이 아닐 수 없다.

제 12 장

요지부동의 성경

최고의 증거는 성경 자신

성경을 응호하기 위하여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상으로 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자신이 최고의 증거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분의 대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막 15:32).

그러나 자기 괴조물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이며, 이것을 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 11:40).

시편 기자도 동일한 원칙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시 27:13).

히브리서 11:3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니니”.

육(肉)에 속한 사람의 마음은 기적에 근거하여 자기 믿음을 세우려고 열망하지만 주님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요 2:23~25). 도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말을 인용하실 때에도 성경 자체가 믿음을 갖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 16:31).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감성(靈感性)을 입증하고 있으며,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최상의 무기도 성경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주 예수님이 원수의 공격에 대처하셨던

* 로버트 앤더슨 경(Sir Robert Anderson)은 그의 저서 “옹호”(In Defense)라는 책에서 기적 하기론, 기적 자체가 기독교의 증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은 사단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기적의 교훈적 성격에 호소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적들이 메시야에 관계된다는 것과 인간이 전혀 행한 적이 없는 기적들을 그분이 행하셨다는 사실에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성경 자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그분은 세 번씩이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마 4:4,7,10).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떠나갔습니다(11절). 이와 같이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남겨두심으로써 우리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역시 성경말씀을 합당하게 인용하여 악한 자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설혹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검”을 그들에게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인(否認)이 성령의 검의 찌르는 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성령의 검 대신 논리나 이성(理性), 철학, 과학 따위와 같은 다른 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믿는 자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의주의자들에게 사용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올가미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혹자가 다음과 같이 잘 퍼력한 것처럼 대적을 침묵케 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단 한 구절의 성경말씀이 천마디의 논쟁에 필적합니다.”

성경을 응호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 자체가 충분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은 역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현대의 사례 하나를 든다면 리틀톤 경(Lord Lyttleton)과 길버트 웨스트(Gilbert West)가 주님께로 돌아온 일입니다.

“영국의 식자(識者)들 사이에서 자연신론(自然神論－세계는 신의 지배를 떠나 독자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종교론. 理神論이라고도 함－역주)이 팽배해 있을 무렵 리틀톤 경과 길버트 웨스트는 합리주의를 응호하는 명성있는 법조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지성적인 사람들은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모두 부정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격파하는 참피온들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어느날 그들은 리틀頓 경의 방에 모여 성경의 기적을 공격하는 일에 합동작전을 펴자고 모의했습니다.

웨스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설로 입증하고 처리하지 않는 한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리틀頓 경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 다소의 사울의 회개가 자기들의 입장에 가장 큰 장애물이므로 그것 역시 ‘신화’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웨스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리틀頓은 다소의 사울의 회개를 부정하는 책 한 권을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및 영광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울의 회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격하는 일에 합동작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법률가였던 그들은 책을 쓰기 전에 이 역사적인 두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울의 기적적인 회개에 관하여 성경에 제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 때까지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던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신중히 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른 후 웨스트는 리틀頓에게 시인하기를, 자신의 성경공부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 뒤흔들어 놓았다’고 했으며, 리틀頓도 역시 털어놓기를, ‘사울의 회개에는 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나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수 개월이 지나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웨스트는 쓰기로 작정했던 그 책을 다 썼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썼지요.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그 책이 아니라 다른 책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들을 조사하고 검증의 원칙에 따라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는 그분의 부활이 성경의 기록대로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자 리틀톤 경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소의 사울의 회개가 사실임과 아울러 성경의 기독교도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쓴 두 권의 책은 인쇄되어 오늘날에도 일부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성경에 대하여 그처럼 냉혹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인간은 자기 이성(理性)을 보좌에 앉히고 자기 지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조차 인간의 이성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중대한 기준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합리적인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처음의 죄도 바로 이런 식으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참으로…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하여 이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관한 의심을 심어 놓았고(창 3:1), 이브는 그 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금기야 죄가

* “화평의 말씀”(Words of Peace) Vol. 36, No 8에서 인용(Grand Rapids, Michigan:Gospel Folio Press). 리틀톤 경이 쓴 책은 “성 바울의 회개”(The Conversion of St. Paul)이고, 길버트 웨스트가 쓴 책은 “그리스도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입니다(New York:American Tract Society, 1929).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3에서 언급하기를, 그녀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0:5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최상의 권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기에 만사는 다 여기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 맞지 않는 이론은 모두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경에 대하여 격대감을 품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활 가운데 있는 죄악입니다. 곁으로는 성경을 응호하는 것처럼 보이던 어떤 사람이 한 번은 복음 전도자를 찾아가서 성경에 대한 의심과 풍자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이 때 그 전도자는 부도덕한 행실이 그에게 있는지 즉시 도전했고, 그의 입에서는 몹시 수치스러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어느 청명한 날 한 불신자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열심히 관찰하는 것을 보고 어떤 성도가 그에게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아무 데도 안보이는군요!’ 그러자 다음과 같이 합당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절대로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불변의 진리입니다.”*

인간들이 성경을 그냥 놔두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그들을 그

* G. H. 랑(Lang)의 “히브리서”에서 인용(London:Paternoster Press, 1951, pp 247).

낳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나. 성경은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징계하고 그 필연적인 운명을 미리 알려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책에 대하여 적의를 품지 않겠지만 악한 사람은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을 미워할 것입니다(요 3:20,21). 이밖에도 그 ‘책중의 책’을 미워하는 인간의 적개심에 관하여 더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상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주종을 이룬다고 여겨집니다.

요지부동의 영원한 성경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의심하고, 부정하고, 증오하고, 금지하고, 불태울지라도 성경은 “시간의 격랑 속에서 요지부동한 반석과 같습니다.” 성경을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원한 손해를 당할 따름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현대주의자들과 고등비평가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면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선생들이나 다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잘 있으니까요.’”*

“애굽에서 나타났던 천사는 다음의 중대한 진리를 모든 기독교 역사(歷史)에서 재선포해 오고 있기에 우리 모두 그 사실을 기뻐합시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 A. J. 폴록(Pollock)의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는가?”(Is the Bible Inspired of God?)에서 인용(London:Central Bible Truth Depot, p. 41).

** 로버트 G. 리(Robert G. Lee)의 “당신도 준비하십시오”(Be Ye Also Ready)에서 인용(Grand Rapids:Zondervan, 1944, p. 20).

108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돔의 수도 페트라의 잔재가 성경의 정확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증거로서 있다.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으나 성경은 페트라의 운명을 예언했다(오바다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잔재는 성경 예언의 정확성을 말없이 증거해 왔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요 10:35).

卷之三

당신이 꼭 아셔야 할 말씀 펴낸부 역음/16면/값 200원
돈으로 살수 없는 진주 펴낸부 역음/6면/값 200원
두 길과 두 운명 킬럼 네이버 지음/18면/값 200원
생명을 위한 생명 펴낸부 역음/36면/값 400원
구원의 안전 확신 기별 조지 카킹 지음/38면/값 400원
어떻게 거닐까? 이춘원 지음/38면/값 400원
참된 구원이란? 알렉산더 마샬 지음/36면/값 400원
복음에 관한 오해들 알버트 호오톨 지음/34면/값 400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허윤숙 지음/36면/값 400원
믿어도 죄인인가? 허윤숙 지음/34면/값 400원
불가능한 일들 알프레드 P. 킴스 지음/24면/값 300원
구원이란 무엇인가? 송재국 지음/34면/값 400원
율법이란 무엇인가? 송재국 지음/36면/값 400원
중생(거듭남) 그것은 무엇인가? 송재국 지음/34면/값 400원
하나님의 구원계획 송재국 지음/34면/값 400원
홍수를 통한 교훈 송재국 지음/34면/값 400원
물사방지 못하는 죄 김종만 지음/34면/값 400원
성경을 알고 자신을 알라 펴낸부 역음/52면/값 700원
영혼의 해답 김종만 지음/72면/값 800원
들으라! 지역에서 들려오는 통곡을 허윤숙 지음/38면/값 400원
믿는 자의 영원한 안전 H.A. 아이언사이드 지음/96면/값 1,400원
해답은 있는가? 존 네일리치드 지음/34면/값 1,100원
단 한 번뿐인 인생 윌리암 맥도널드 지음/98면/값 1,400원
용서와 자유 윌리암 맥도널드 지음/98면/값 1,400원
하나님의 은혜 윌리암 맥도널드 지음/88면/값 1,400원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윌리암 맥도널드 지음/84면/값 1,100원
임박한 아미겟돈 윌리암 맥도널드 지음/64면/값 1,100원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D.L. 무니 지음/32면/값 500원

제2장 유통망

신앙상회 지침서

<p>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월리암 맥도널드 저작/114면/값 2,000원</p> <p>성경에서 일하는 원칙 23가지 이드먼 헐 저작/380면/값 6,500원</p> <p>성경에서 일하는 장로직 알렉산더 스트라크 저작/344면/값 6,200원</p> <p>설교자와 그의 설교 알프레드 P. 깁스 저작/464면/값 8,500원</p> <p>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 애비 알프레드 P. 깁스 저작/240면/값 4,000원</p> <p>세대주의의 비른 이해 찰스 리아리 저작/242면/값 4,800원</p> <p>주님의 만찬 알프레드 P. 깁스 저작/256면/값 4,300원</p> <p>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노먼 안토니포드 외 저작/288면/값 4,800원</p> <p>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M. 모리스 저작/320면/값 5,000원</p> <p>핵심 설교 노트 월리암 로저스 저작/496면/값 9,000원</p> <p>나그네의 소길 아춘원 저작/308면/값 4,800원</p> <p>왜가리와 우림이 윌리엄 저작/240면/값 3,800원</p> <p>롯의 미아 같으리니... 찰스 스트리트 저작/192면/값 3,800원</p> <p>세계 선교 - 전선에서 L. E. 맥스웰 저작/208면/값 3,500원</p> <p>엘리야·엘리사 C. E. 타임·V. D. 트랜델 저작/144면/값 2,800원</p> <p>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월리암 로저스 저작/128면/값 2,500원</p> <p>진리의 열과 미래의 열 빅준형 저작/80면/값 1,700원</p> <p>구원의 영원성과 난해구절 해설 빅준형 저작/96면/값 1,700원</p> <p>영원을 계신하는 삶 월리암 맥도널드 저작/128면/값 2,500원</p> <p>참된 제자의 길 월리암 맥도널드 저작/96면/값 1,800원</p> <p>매일의 묵상 월리암 맥도널드 저작/448면/값 8,500원</p> <p>성령총만한 가정 판권부 원음/146면/값 2,800원</p> <p>결혼과 가정 A. J. 허간즈 저작/160면/값 3,200원</p> <p>도민자 -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들 파트리시아 M. St. 모한 저작/192면/값 4,000원</p>
--

※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1부 * 두 가지의 관점의 차이

이리어들고 함께 보는 책

※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 발행일 : 1993년 4월 10일 1판 1쇄 발행
1996년 12월 20일 1판 2쇄 발행
- 저은이 : 윌리암 맥도날드
- 옮긴이 : 김병희
- 발행인 : 이치일 (E. Ritchie)
- 발행소 : 전도출판사 (동록 No. 4-41호)
-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호
- 전화 : (0344) 914-2732
- 팩스 : (0344) 917-4520
- 정가 : 2,300원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ISBN 89-7531-715-3 03230